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4 장



아비뇽 시 ~ 1347년 5월

오후 공기에는 빗냄새가 진하게 감돌았고, 서쪽 하늘은 검게 물들어 있었다.

영국에서 아비뇽으로 도착한 린 추기경은 삼엄한 경호를 받는 마차를 타고 멜로우 성의 안뜰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일행의 발걸음마다 먼지가 휘날렸지만, 그들이 다가오자 회오리치는 먼지 구름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폭풍이 몰아쳤다. 마차가 입구에 가까워지자 린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 창밖을 내다보았고, 선발대원 몇 명이 멍하니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다.

린의 호위대장은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가며 허둥대는 호위병들을 꾸짖었다. "차렷! 서!" 아무도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대장은 말을 멈추고 가장 가까이 있던 말을 붙잡았다. "하사!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당장 설명해 보세요!"

"지금 당장 대답해!" 하사는 마차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듯 비틀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은 이제 그만!” 추기경이 고함을 질렀다. 린은 마차에서 뛰쳐나와 바람에 모자를 챙이 넓은 손으로 툭툭 두드리며 내려놓았다.

대장과 다른 세 명의 호위병이 추기경과 합류했고, 린 일행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위층에서 일정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추기경 바실리스테의 침실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졌다.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얼어붙었다. 몇몇은 신음 하며 시선을 돌렸다. 린 추기경은 손수건을 꺼내 코와 입을 가렸고, 한 경비병은 열린 창문으로 달려가 구토를 했다.

린 앞에는 검고 부풀어 오른 바실리스테가 침대에 뺨뺨하게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말벌 떼로 뒤덮여 있었다. 곤충들은 열린 창문을 통해 끊임없이 드나들며 그의 머리에서 쏘인 구더기를 떼어냈다. 죽은 추기경은 뺨뺨하게 굳어 썩어가는 몸으로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눈은 더러운 동전 두 개처럼 바닥에 말라붙어 있었다. 린은 창밖으로 멀리 다가오는 폭풍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다시 방 안의 덥고 정체된, 답답한 공기로 시선을 돌렸다. 희미한 라벤더 향과 묵은 인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몇몇 곤충들이 그의 몸을 살살이 뒤지며, 마치 윙윙거리는 후광처럼 그의 머리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나 린은 그런 세세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방 안의 유물들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책상 위에 놓인 양피지 한 장에 시선이 멈췄다. 그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린은 추기경의 마지막 말이 적힌 양피지를 들어 올렸는데, 그 말은 그에게 보내진 것이었다. 잠시 후, 일행은 들어올 때처럼 서둘러 성을 나섰다. 린은 성 밖으로 나가면서 편지를 훑어보았다. "외경이로 군! 바람처럼 달려가!" 그는 마차에 올라타며 으르렁거렸다. "당장 올라타!" 대장은 안장에 뛰어오르며 경비병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남자들은 서둘러 말에 올라탔다. 대장은 말을 몰아 일행의 선두로 향했다. 마차가 덜컥거리며 앞으로 쏘살같이 나아갔다. 린은 편지에서 눈을 떴고 몸서리쳤다. 스물네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추기경은 아비뇽을 떠나 론 강 다리를 건너 서쪽으로, 외경의 터전으로, 지평선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먹구름을 향해 말을 몰고 갔다. 그러나 린의 관심은 외경 공의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공의회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교황 클레멘트에 대한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비에르 추기경과 바실리스테 추기경이 살해당하면서 린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상급 평의회 의원이 되었고, 거의 5세기 동안 평의회가 은밀히 간직해 온 모든 것이 이제 그의 어깨에 놓였다. 교회법상 그리스도의 대리자, 즉 통치자인 교황이 평의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었지만, 린은 클레멘트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거 추기경 시절, 클레멘트는 외경 공의회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제안에 대해 열렬히 반대했었다. 클레멘트는 항상

린은 공의회가 추기경단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클레멘트가 교황이 된 후에도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클레멘트를 직접 만나게 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는 외경 공의회 역사상 전례 없는 일, 즉 외경 기록 보관소에서 증거물을 꺼내 클레멘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반항 행위를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린과 클레멘트는 성격이 정반대였고, 서로 부딪쳤다.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린은 과묵하고 겸손하며 조심스럽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클레멘트는 눈치 없고 참을성이 없었으며,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을 즐겼다. 교황으로서 그의 태도는 엄격한 신의 사자라기보다는 멋쟁이 군주에 가까웠다.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갈 때는 형식적이고 간결했으며, 대체로 별다른 사건 없이 이루어졌다. 4년 동안

클레멘트 교황 즉위 이후, 바실리스테 추기경은 외경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교황을 찾아갔지만, 매년 새로운 궁전 건설, 국정, 재정 및 세금 문제 등 더 시급한 사안이 있다는 이유로 알현을 거부당했습니다. 클레멘트 교황은 바실리스테 추기경이 사망한 후에도 상급 평의회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고, 그의 이러한 무대응으로 한때 막강했던 상급 평의회는 쇠퇴했습니다.

그의 책임이 약해진 것은 거의 확실히 고의적인 태만 때문이었다. 그러나 린은 이제 클레멘트에게 억지로라도 접근하여 외경 평의회라는 유서 깊은 조직에 대한 그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 공의회 건물은 1334년 교황 베네딕트 12세의 명령으로 건설되었다. 그는 교황권을 로마로 되돌리겠다는 열망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티칸에 있던 모든 교황 기록물을 프랑스의 이 새로운 요새로 옮겼다. 무덤 같은 이 건물은 습하고 광활한 론 강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삼면이 2차림과 가시덤불로 뒤덮인 가파른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동쪽으로는 아비뇽의 성벽이 강 계곡 협곡 위로 우뚝 솟아 있었지만, 서쪽으로 갈수록 도시의 웅장함은 사라지고 약취가 진동했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장이 찍힌, 삼엄한 경비를 받는 마차가 키 큰 상록수 숲으로 가려진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길을 힘겹게 올라갔다.

나무들 뒤로 어둡게 솟아오른 돌 성벽은 그 너머 하늘처럼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하늘은 마치 흘날리는 재처럼 질어졌고, 바람은 방향을 바꾸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번쩍이는 섬광과 천둥소리가 들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린의 일행은 진흙탕이 된 좁은 길을 힘겹게 올라갔다. 말에서 내려 진흙투성이가 된 경호원 몇 명이 마차 뒤쪽을 붙잡고 힘을 합쳐 마차를 재촉했다.

앞으로. 그들은 웅덩이에서 그것을 끄집어내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번개가 앞길을 밝히는 동안, 외경의 윤곽은 끊임없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웅장한 돌담 요새의 외관에는 창문 하나 없었다. 유일한 입구는 밤낮으로 평의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은 상급 평의회에서 강인한 체력과 의지,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직접 선발한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필립 왕의 왕실 근위대의 엄격한 의례조차도 이들에 비하면 약해 보였다. 그 삼엄한 경비 속에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 극소수만이 아는 성경 말씀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에녹서, 희년서, 거인서, 솔로몬서 등 한때 성경이었던 책들의 완전한 사본부터 천 년 동안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쓰인 고대 두루마리까지. 그리고 오래전에 파괴된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 도서관 유물과 대홍수 이후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유대교 사원에서 압수한 아시리아 점토 원통까지.

초기 십자군 전쟁 당시, 외경의 내용은 교회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었고, 그 비밀은 철저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린은 추기경이 거의 암기하고 있던 외경 네 권에 담긴 자료를 찾으려 애썼다. 외경에서 무엇인가를 빼내는 것은 그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감히 진실이라고 믿지 않을 것들을 클레멘트에게 납득시키는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었다.

네 권의 책자 중 첫 번째는 가장 큰 책자인 『조각상 신체 구조(Statue Physique)』였다. 이 책에는 평의회 수도원과 두 개의 문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고, 각 수도원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문석은 876년, 즉 그의 통치 기간에 발굴되었다.

교황 요한 8세 시대에 발굴된 이 유적지는 이탈리아 교황령 내 움브리아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고대 삼니테족 정착지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석은 교황 스테판 6세 시대인 87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에 있는 이 거대한 돌기둥은 루아르 강 남쪽의 돌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공의회 선언문이었다. 여기에는 공의회의 역대 구성원 목록이 담겨 있었다. 상하 공의회에서 봉사했던 모든 교황과 공의회 의원들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었다. 또한 공의회의 운영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 번째 구속력은 1336년 교황 베네딕트 12세가 작성한 종교개혁 제외 조항이었다. 이는 교황 칙서인 《레 뎀프토르 노스터》에 대한 교회법적 수정 또는 배제 조항이었다. 이 조항을 통해 공의회는 두 수도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잘 맞았습니다.

린이 찾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문서는 나람신 번역본, 즉 상급 평의회에서 '문석 해독' 이라고도 불리는 문서였다. 3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약한 제본 문서는 수도원 서기관이자 가르디아 수도회의 고(故) 성직자였던 나람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그는 헌신적인 봉사와 신앙심으로 프랑스 석비에 새겨진 비문을 홀로 해독해냈다. 이 번역본은 프랑스 석비에 새겨진 알 수 없는 언어를 라틴어로 옮긴 것이었다. 이탈리아 석비에 새겨진 비문도 동일했기에, 나람신 번역본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있는 두 문석 모두의 번역본으로 사용되었다.

린은 네 가지 텍스트 중 어느 하나라도 무지한 교황에게 닥친 진정한 위협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린의 지배 하에, 즉 그의 손아귀에 넣으려면 네 가지 텍스트 모두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외경의 통제권. 평의회가 살아남으려면 그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 린의 마차가 멈춰 서자 그는 마차 입구를 통해 빗속에서 두 줄로 늘어선 그림자들이 거대한 철제 문 두 짝, 즉 외경의 입구를 에워싸는 모습을 보았다.

외경 도서관 내부, 거대한 문 너머에는 벽에 켜진 햇불이 복도 입구를 따라 늘어선 스무 명의 굳건한 경비병들을 비추고 있었다. 문 반대편에서는 창자루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외경 도서관 평의회 린 추기경의 명령에 따라 문을 열라!" 라는 나지막한 명령이 들려왔다.

두 명의 경비병이 쇠창살을 제거하고 힘겹게 문을 열었다. (카디널 린)

그리고 그의 상관은 폭우에 흠뻑 젖은 채 분주하게 걸어 들어왔다. 두 사람이 지나가자 경비병들은 고개를 숙였다. 문은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린과 상관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둡한 복도로 사라졌고,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포장된 돌바닥에 자국을 남겼다. 돌바닥에는 복도를 밝히는 햇불의 흔들리는 불빛이 반사되었다.

린이 모퉁이를 돌아 복도 끝에 다다르자, 여섯 명의 경비병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정교한 조각과 반짝이는 금속판, 보석으로 장식된 높고 화려한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썩기들 위에는 그리스 문자로 '아포크리포스'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문지기가 손을 들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며 앞으로 나섰다. "멈춰!" 뒤에 있던 경비병들도 무기를 들어 올렸고, 무거운 철갑옷이 부딪치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린은 문지기 앞에 멈춰 섰고, 문지기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용을 말해라 —"

린은 손을 재빨리 쳐냈다. "시간 없어!"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손을 모아 상사의 귀에 통과의례의 말을 속삭였다.

병사는 몸을 돌려 발뒤꿈치를 부딪치며 문지기들에게 "추기경 린 각하께 길을 비켜드리시오!" 라고 말했다.

경비병들은 황급히 길을 비켜주었고, 하사는 커다란 낫쇠 열쇠를 자물쇠에 끼워 넣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어깨를 높이 솟은 문의 깨끗한 나무 판자에 깊숙이 파묻었다.

문 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린은 경비병 중 한 명이 건네준 손전등을 받아 들고는 새로 생긴 틈 사이로 몸을 숙여 들어갔다. 그의 뒤에서 거대한 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다. 메아리가 사라지고 정적이 그를 감쌌다. 고요함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오직 그의 숨소리와 햇불 불꽃이 꾸준히 흔들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린은 결연한 발걸음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쳐 나가며 벽에 걸린 햇불들을 차례로 켜다. 추기경이 어둠을 걷어내자 거대한 방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벽면에는 수많은 책장이 줄지어 있었다. 책장들은 바닥을 가로지르며 통로처럼 뻗어 있었고, 책꽂이에는 방대한 양의 문서들, 즉 필사본, 두루마리, 그리고 글이 새겨진 점토 원통들이 가득했는데, 모두 교황청의 비밀이었다. 린은 빈 책꽂이에 햇불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선반 옆면에 손전등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넓은 독서대가 그의 앞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개의 나무 의자 중 하나를 들어 올리고는 서둘러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다.

수많은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는 모퉁이를 돌아마자 얼어붙었다. 온몸에 얼음과 공포가 차올랐다. 몇 미터 더 가니 이미 발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들고 있던 발판을 떨어뜨리고 다른 발판으로 달려갔다.

린은 새 의자 위에 올라가 선반을 살살이 뒤지며 눈앞의 물건들을 열정적으로 살폈다.

그는 마침내 그 책을 찾았다. 바로 '조각상 체질'이었다. 한숨을 내쉬며 마치 새 힘을 얻은 듯, 그는 두꺼운 책을 집어 들고 독서대로 달려갔다. 책을 탁자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표지를 펼치자마자 그의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몇 페이지가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안 돼!" 그는 숨을 헐떡이며 책장을 넘기다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놀라움과 깊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책장을 가득 채웠다. 책의 절반 가까이가 찢어져 사라져 있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는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나 닫힌 문을 향해 달려갔다.

"당장 이 문을 열어!" 린은 주먹으로 문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열쇠가 자물쇠에 딸깍 소리를 내며 꽂히고, 그는 새로 얻은 힘에 도취되어 무거운 문을 밀어 열었다.

"누가 기록 보관소에 들어갔던 거야?" 린이 소리쳤다.

하사는 말을 더듬으며 "당신, 음 당신들만 당신들 평의회 유일한 추기경들만 입장이 허용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린은 그의 얼굴에 바짝 다가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의회의 마지막 생존자다. 마지막이라고! 다른 사람은 없다!"

"마송 추기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사가 물었다.

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매슨이라고요? 그런 추기경은 없습니다."

"저, 이 매슨은 그 구절을 알고 있었소, 각하! 제 명령은 허락하라는 것이오—"

"열쇠, 내봐!" 린이 말을 끊었다. 병사는 그의 말에 따랐다. 린은 열쇠를 자신의 겹옷 아래에 숨겼다. "네 명령은 알고 있다, 경비병!" 린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말해봐,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린은 자신의 붉은색 겹옷을 가리키며—"추기경 복장을 하고 있었나?"

"예, 각하. 그는 자신이 새로 선출된 평의회 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황 성하께서 특정 정경 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하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사, 제가 외경을 방문한 이유는 교황님께 외경에 대한 그분의 의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각하, 제 명령은 "

"맙소사," 린은 떨리는 손가락에 정신이 팔린 채 중얼거렸고, 눈은 주위를 서성거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사와 눈을 마주치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매슨 추기경은 어떻게 생겼습니까?"라고 다그쳤다.

"자신감이 넘쳤군. 마치 추기경처럼 위엄 있게 행동했지. 키도 크고, 금발에, 피부도 하얗고 아, 그리고 한쪽 눈은 갈색이고 다른 쪽 눈은 흰색이었군!" 병사는 왼쪽 눈을 가리켰다. "이쪽 눈은 실명이었네."

린은 몸을 굳히고 이를 갈았다. 그런 눈빛을 가진 추기경은 단 한 명뿐이었다.

젠장, 린은 생각했다. 블라시, 분명 대학에서 시킨 짓일 거야.

"그와 함께 온 사람은 누구였지? 호위병이었나?" 린은 당황한 하사에게 다그쳤다.

"각하, 그분은 홀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말을 타고 오셨죠."

"혼자서요?" 린은 크게 코웃음을 쳤다. "하사, 저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장갑차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추기경이 호위 없이, 그것도 말을 타고 궁궐 밖,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각하, 이 매슨, 아니 이 남자는 올 때마다 방금 각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제 명령은 "

"당신 명령은 알고 있어요!" 린이 폭발하듯 소리쳤다. "그가 올 때마다, 몇 번이나 그랬습니까, 하사? 이 침입자에게 몇 번이나 문을 열어줬습니까?"

"최근 며칠 동안 여러 번 봤습니다." 하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도 다시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하, 제가 그를 구금해야 할까요?

린은 클레멘트가 외경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라시의 체포는 그를 더욱 분노하게 하고 이미 불안정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닙니다, 하사님.” 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에게 외경 접근을 막으십시오. 체포하지는 마십시오. 새 평의회가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때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그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저요, 각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해?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각하.”

그 남자는 거의 20년 동안 같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 린은 그를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열렸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가고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자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바실리스테 추기경은 고문을 당해 그 구절을 자백했고, 이는 블라시가 바실리스테 살해에 연루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너는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가 내가 가기 전에 그 구절의 내용을 바꿀 것이다.” 떠나십시오. 나 말고는 아무도 기록 보관소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요. 나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각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사는 서둘러 동의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입자가 무엇을 가지고 오거나 갔습니까? 하다못해 종잇조각이라도요?” 하사관은 이렇게 대답했다. “첫날 그는 기록 보관소에서 책 두 권을 빼갔고, 저는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를 화나게 했지만, 그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옷을 최대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감히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추기경이었으니, 그의 몸을 수색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다. 뺨이 붉어진 그는 바닥 돌맹이를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각하, 제가 당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린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 문을 닫아.”

“예, 각하.” 하사는 높은 문을 힘껏 닫았고, 린은 성직자 복장에서 열쇠를 꺼내 안에서 문을 잠갔다. 그리고 독서대로 돌아갔다.

린은 피해 상황을 평가하고, 블라시가 찢어진 페이지에서 무엇을 알아냈을지 추측해 보았다.

그는 페이지를 더 넘겼다.

“젠장!” 린은 없어진 부분을 손으로 광 내리쳤다. 책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나라신 번역본이 전부 삭제되어 있었다.

“빌어먹을 자식!”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그의 분노는 선반과 바닥을 넘어 어찌면 지구의 핵까지 울려 퍼졌을지도 모른다. 린은 클레멘트를 통해 블라시가 침묵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까악! 까악!" 쉼 목소리의 "까악!"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린은 고개를 번쩍 들어 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까마귀 한 마리가 책장 위에 앉아 날갯짓을 하며 허공을 휘젓고 있었다. 린은 천천히 일어섰다. "맙소사, 어떻게—" 그때 새가 린에게 달려들어 그의 눈을 겨냥했다.

비명을 지르며 추기경은 뒤로 비틀거렸다. 번개처럼 검은 깃털이 번쩍이는 부리와 발톱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었다. 피투성이가 되고 앞이 안 보이는 린은 허둥지둥 뒤로 물러서다가 거대한 선반에 부딪혀 넘어졌다. 선반이 뒤로 젖혀지자 까마귀는 날아올랐다. 무릎을 꿇고 눈에서 피를 닦아낸 린은 그 새가 처음 봤던 바로 그 선반 위에 태연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빠걱!" 린은 어깨 너머로 흔들거리던 책장이 자신 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팔을 뻗으며 비명을 질렀다. 책과 책꽂이가 마치 눈사태 처럼 쏟아져 내렸다. 책들이 마치 산사태처럼 그의 위로 덮쳐왔고, 키 큰 사람조차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방 안이 흔들렸다.

문. 선반 옆에 기대어 있던 햇불이 책 더미 위로 떨어져 불길을 일으켰다. 그러자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타닥거리는 불꽃과 잔해 아래 깔린 추기경의 희미한 신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순식간에 까마귀의 형체는 흩어지는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각하!" 하사관이 높은 문을 두드리며 그를 불렀다.

상자 아래에는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산산조각 난 린이 묶인 채 누워 있었다. 책과 책꽂이가 사방을 가로막고 있었다. 연기가 더미 사이로 스며들었다. "맙소사! 도와 주세요! 경비병들!" 그가 외쳤다.

연기가 바닥을 따라 퍼져나가더니, 문턱 아래에서 하사관의 군화 주위로 모여들었다. "숫양을 가져와! 모든 병사를 소집해! 당장!" 하사관이 이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린 추기경! 문을 열어!"

시간이 흐르고 연기는 더욱 짙어졌다. 병사들이 쇠망치를 가지고 돌아와서 는 높은 문을 두드렸는데, 그들은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숨 막히는 비명을 질렀다.

발부터 불타오르는 추기경.

~*~

공교롭게도 운명은 블라시 추기경에게 호의적이었다. 만약 린이 하루만 더 살았더라면, 블라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을지도 모른다. 교황은 외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조사는 어쩌면...

그가 평의회가 지켜왔던 비밀을 폭로했다면, 교황은 블라시가 비참한 무덤에 묻혀 있더라도 분명 새로운 상급 평의회를 임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블라시는 이제 마법처럼 모든 장애물을 피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외경이 화염에 휩싸인 다음 날, 교황의 군사령관인 피트로 대위가 사고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피트로 대위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레안 추기경의 죽음과 기록 보관소의 내용을 파괴한 화재는 단순한 사고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교황청은 바실리스테 추기경 살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지만, 그다지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필립 2세 국왕의 교황궁 방문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궁궐의 관심과 화두는 온통 정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외경과 그 안에 담긴 비밀은 잠시 미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프랑스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고, 필립 2세는 현재의 휴전 협정 하에서 잃어버린 북부 영토를 되찾기 위해 클레멘트 교황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한 달 동안 블라시는 자신이 훔친 기록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나람신 번역본이었다.

샤토 루즈의 한적한 곳에서 그는 그 매혹적인 글을 읽고 또 읽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경외감에 휩싸여 생각했다. 내 형의 환영이 옳았어. 이 거대한 돌기둥은 에드워드를 프랑스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힘을 가지고 있어.

그와 함께 잉글랜드.

블라시가 교황궁의 회랑 안뜰로 들어선 것은 이른 오후였다.

그는 줄린이 두 하인을 이끌고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하인들의 어깨에는 은색 단추가 촘촘히 박힌 짙은 남색 천이 길게 걸쳐져 있었다.

“줄린 추기경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블라시가 방청석을 가로질러 소리쳤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붉은 예복을 입은 또 다른 추기경, 피르무스 추기경이 줄린에게 다가왔다. 피르무스 역시 궁정 관리관이었으며, 그의 직무 때문에 궁정 추기경들 중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궁궐의 모든 일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교황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피르무스는 교황의 눈과 귀였으며, 마치 이미 교황의 눈과 귀였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차기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사실 그의 행동은 자기중심적이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았다. 몸.

“줄린, 투생 추기경이 어디 있는지 알아?” 블라시가 물었다.

피르무스가 말을 끊으며 말했다. “블라시, 필립 폐하를 위해 와인 통 세 개에 표시를 해 두었나?”

“어젯밤에 그랬어.” 블라시는 통명스럽게 대답한 후 줄린에게 다시 돌아서서 “투생은 어디 있지?” 라고 물었다.

줄린은 어깨 너머로 힐끗 돌아보았다. “그는 방금 전까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마도요.”

그가—아! 지금 오고 있어요."

투생은 두 팔로 몸을 지탱하며 회랑의 아치형 통로를 통과했다.

두툼한 정사각형 모양으로 접힌 파란색 천.

피르무스는 추기경들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며 블라시의 관심을 요구했다. "투생은?"

국왕 폐하의 병 상자를 채우고 표시를 했습니까?

줄린이 이 질문을 가로챘다. "그는 그랬어요. 이틀 전예요."

투생은 숨이 차고 얼굴도 붉어진 채 그 무리에게 다가갔다. "줄린,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천을 떨어뜨려서 더럽힐 거야." 그는 통명스럽게 말했다. 줄린은 얼굴을 찡그리며 무거운 짐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세 명의 하인들을 발견했다.

"이런! 떨어뜨리지 마! 연회장으로!" 울린은 하인들에게 잔소리를 퍼부었다. 그는 몸을 돌려 두 추기경에게 인사를 했다. "블라시, 피르무스." 그는 서둘러 떠났고, 하인들은 그의 뒤를 따랐다.

"바로 뒤에 있어요." 투생이 뒤따라 소리쳤다. 그는 블라시와 피르무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줄린을 따라 서둘러 갈 준비를 하는 듯했다. 피르무스는 그의 앞으로 나서서 두 손을 등 뒤로 깎지 끼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성하께서 병 상자들이 포장되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긴 코를 찡긋거리며 투생을 내려다보며 중요한 듯이 말했다. "그렇겠지요?"

"당연하죠." 투생이 쏘아붙였다.

블라시는 짜증스럽게 툭툭거렸다. "줄린이 얼마 전에 투생이 와인 병들을 준비해 놓았다고 인정했소." 피르무스는 고개를 더욱 뒤로 젖히고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 블라시를 쏘아보았다. "그가 준비해 놓은 건 맞지만, 난 투생의 말을 듣고 싶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소. 아, 그리고 블라시, 폐하를 위해 표시해 둔 와인 통 옆에 경비병을 배치했소?"

"그럴 필요 없었어요." 블라시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와인통들에게 만약 탈출을 시도한다면 내가 직접 가서 술에 취해 죽여버리겠다고 경고 했거든요. 그래서 탈출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의 입가에 씩씩한 미소가 번졌다.

투생은 웃음을 참았다.

피르무스의 미간이 굳어졌다. "추기경들의 농담은 못 들은 척하겠소." 그는 차갑게 말했다. "블라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었소?"

"만약 폐하께서 독살당해 돌아가신다면, 자네가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지." 투생을 향해 돌아서며 그는 말을 이었다. "군수대장은 경비실에 없네."

오늘 그를 보셨나요?

블라시가 끼어들었다. "아마 당신은 이미 내 와인 통이 경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트로 대위에게 경비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제가 경비를 세웠는지 묻는 건 꽤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피르무스는 버럭 화를 냈지만, 블라시는 그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물어봤으니, 아마도 당신은 뭔가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겠지요."

내가 직무를 꼼꼼하게 태만히 한 것을 교황님께 납득시키시려는 겁니까?
피르무스, 이것이 당신의 계획의 의도인가요? 자신을 유리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말이죠.

교황청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움으로써 나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피르무스는 잠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며 그 비난에 반박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나중에 말할 때까지 간직한다."

투생은 피르무스의 이전 질문에 답함으로써 외교적으로 갈등을 해소했다.

"피우네르 백작께서 도착하셔서 고위 인사 대기실에 계십니다. 피트로 대위님과 피르무스 추기경님도 그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이죠." 피르무스는 자신의 말로 대화를 마무리 짓고 싶어하며 동의했다. 그는 투생과 블라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투생 추기경님, 블라시 추기경님."

블라시는 그 남자가 어느 정도 평정심을 되찾을 시간을 준 후, 뒤따라가며 이렇게 외쳤다. "지나가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자는 마치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자와 같으니라."

피르무스는 그 말이 잠언에서 나온 자신의 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몸이 굳어졌지만, 못 들은 척 계속 걸어갔다.

투생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블라시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피트로 대위가 저기, 당신 뒤에 있어요." 그는 안뜰 저편 아치들을 은근히 가리켰다. "저기, 맨 끝 기둥 너머에 있어요. 경비병과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 잘했어, 투생." 블라시는 기둥 쪽으로 걸어갔다. 기둥 뒤에 서 있는 피트로를 발견하고 그의 귀에 속삭였다. 피트로는 블라시의 속삭임에 고개를 끄덕인 후 경비병에게 명령을 내렸고, 경비병은 몸을 돌려 지하 저장고 방향으로 서둘러 갔다. 블라시는 고맙다는 듯 피트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투생에게 돌아갔다.

"친구,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너와 꼭 나뉘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블라시는 거의 애원하듯 재촉했다. 투생은 블라시의 집착에 가까운 시선과 손짓, 간절한 자세를 살폈다. 블라시의 어깨 너머로 그는

"야야! 어서 오너라!" 하고 짚었다. 귀가 큰 시종 소년이 붉은 옷을 입은 추기경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폐하?"

"에미넌스(Eminence)라고 불러야지, 꼬마야." 투생이 그를 바로잡았다. "에미넌스라고 해야지. 자네는 쥘린 추기경의 부하 중 하나지, 그렇지?"

"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은 연회장에 계시다." 투생은 초라한 차림의 아이에게 두꺼운 비단 천 조각을 건네주었다. "자, 이 천을 가져다 드리거라. 쥘린 추기경께 투생 추기경께서 곧 도착하실 거라고 전해다오. 그리고 이 천을 더럽히면 네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네, 엠누 폐하."

투생은 한숨을 쉬며 자료를 건네주었다. "자, 그럼 가자." 소년은 서둘러 달려갔다.

천을 치우세요. 투생이 말했다. "지하실은 아닙니다. 당신은 거기에 경비원을 보냈고, 저는 식료품 저장실에 하인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병 보관실은 당연히 개인 공간입니다."

"괜찮습니다." 블라시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안뜰을 나섰다.

붉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속삭이며 거친 나무 계단을 따라 병 가게로 들어갔다. 투생은 하인들이 있는지 여섯 개의 방을 살펴본 후 블라시를 병 보관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득 찬 선반과 빈 선반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곳을 헤매며 물건을 교환했다. 그들은 방 구석으로 향했다. 이곳에 서 있으니 유리한 위치였다.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침입자가 듣기 훨씬 전에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블라시는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갔고, 투생의 얼굴에는 충격, 회의, 공포, 혐오, 그리고 마침내 노골적인 불신 등 온갖 감정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다.

블라시의 말이 끝나자 그는 단호하게 물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걸 믿을 수 있겠어? 마치 환상적인 이야기 같잖아!"

블라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말하는 두 수도원이 교황청 세금 기록에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공의회의 목적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 기록 보관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의회와 추기경들이 왜 항상 교회 선거인단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투생, 저는 외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는 말은 하느님과 프랑크 앞에서 하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제가 외경 평의회가 지옥의 문인 돌들을 지키기 위해 이 수도원들을 지었다는 말인가요?" 투생이 천천히 말했다.

돌에 새겨진 이 글귀를 말하면 지옥문이 열릴 거라고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문석들이—투생은 마치 그 단어가 입안에 쓴맛이라도 나는 듯 입술을 머금고 말했다— "프랑스 전체를 구원할 거라고? 블라시, 내가 이성이 없다고 해서 교황청 추기경을,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교황청 동료들에게 존경받아 온 그 사람을 데려온 건가?" 그는 콧방귀를 끼었다. "멍청이조차도 네 그런 무모한 주장을 믿기 어려울 거야!"

"정말이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투생, 맹세컨대 정말이야."

"좋습니다." 투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당신 말이 사실 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블라시, 당신이 평의회 수도원 중 한 곳에 잠입할 방법을 찾아내고, 삼엄하게 경비되는 이 돌을 발견해서 지옥문을 열 수 있는 정확한 주문을 외울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투생은 블라시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악마들을 설득할 겁니까?"

"당신의 명령에 따르라고요? 이 사탄의 자식들이 이 돌에서 쏟아져 나올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가서 영국인들을 없애라!'라고 하시겠어요?" 투생은 거칠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웃으며 말했다. "새장에서 풀러난 새가 명령에 따라 돌아오지 않는데, 어찌하여 이 정령들이 자유로워지면 당신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게다가 어떻게 말만으로 돌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아니, 블라시, 당신은 마치 환상에 사로잡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있군요!"

블라시는 "게이트스톤은 단순히 열고 닫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닌다" 고 반박했다. "그것들은 문과 같지만,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습니다. 영들은 그 안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글귀들은 성경처럼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돌에 새겨진 말씀으로 영들을 불러내거나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투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군. 왜 이 정령들을 해방시킨 후에야 당신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가?"

"번역본에 따르면 이 문석에서 영혼을 불러내어 명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라시는 절박한 마음에 거의 광기에 가까운 어조로 병방 벽의 두꺼운 판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신성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크레시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살해당한 제 형 장 자크가 제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

"이런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 투생 추기경이 불쑥 말했다. "나는 연회장에 가야 한다. 혹시 네 형제의 영혼과 이 돌로 만든 악마들을 불러낼 수 있겠나?"

널 돕기 위해서라고? 블라시, 네가 이단으로 고발당할 때 줄린도 나도 네 편에 서지 않을 거야. 오, 네가 부탁한 대로 네 황당한 이야기를 줄린에게 전해줄 테니 안심해. 그러면 줄린은 널 열병에 걸리게 해서 완전히 미치게 만들 거야.

저도 그래요." 투생은 돌아서서 말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 블라시가 그의 뒤를 따라 소리쳤다.

투생은 말을 하면서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당신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한다면—"

"직접 음반을 보시겠어요?" 블라시는 병들이 진열된 선반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투생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턱을 문질렀다. 블라시의 터무니없는 주장과는 상관없이, 만약 추기경단이 오랫동안 그토록 소중히 간직해 온 비밀스러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정말로 주어진다면, 어떤 추기경도 그 기록을 들여다볼 기회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기록들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만약 기록들이 설득력이 있다면 더 자세히 들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줄린과 저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블라시,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이 이 기록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고, 개인적으로 검토한 후에는 모든 페이지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까?"

"저는 그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좋습니다." 블라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의 힘없이 쓰러질 뻔했다. 친구들이 자신이 본 것을 알게 되면, 그에게 아군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에게 사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투생은 웃었지만, 생각에 잠긴 듯했다. 이 남자는 광기에 사로잡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경의 기록은

"합의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기록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하실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블라시는 떠났다.

투생은 블라시가 안뜰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보테유리에서 나가기 전 기다렸다. 게다가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헛소리를 했을지도 모른다. '투생은 그 남자가 2주 안에 심문관의 고문대에 오르게 될 거라고 확신했으니,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건 좋지 않을 거야.'

약속대로 블라시는 다음 날 아침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투생에게 『신체 조각상』과 여러 다른 책에서 찢어낸 외경 페이지들을 건넸다. 거의 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마법에 걸린 듯 잠시 책을 읽던 투생은 섬뜩한 공포와 함께 블라시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모두 사실이야.' 그는 멍한 상태로 생각했다. '전부 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그는 서재에 앉아 움직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고대 문서들이 그의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어둠이 내리자 그는 악몽의 안개 속에서 깨어나려는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모두 사실이야." 그는 텅 빈 방을 향해 속삭였다. 투생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들을 모아 찢린 추기경을 찾아 나섰다.

아비뇽 시 ~ 교황궁 ~ 1347년 6월

교황궁의 콘클라베 홀은 종교적인 장면을 묘사한 벽화와 교황 고위 인사들의 초상화로 가득 차 있었다. 플랑드르산 벽걸이 태피스트리가 호화로운 공간의 천장 높이까지 걸려 있었다. 홀은 높이 솟은 벽 아래 길고 넓게 펼쳐져 있었고, 거대한 목재 천장 아래로는 마치 바다처럼 넓은 바닥이 펼쳐져 있었다. 아치형 들보들은...

지붕은 마치 뒤집힌 배의 선체처럼 생겼는데, 어쩌면 노아의 여정에도 어울릴 법한 모습이었다. 이 홀은 궁궐의 손님방, 즉 방문하는 고위 인사들을 위한 스위트룸으로 사용되었으며, 어떤 손님에게도 적합했다. 왕.

경비병과 하인들이 홀 입구를 드나들며 필립 왕의 짐을 풀었다.

짐을 나르고 있었다. "길을 비켜라!" 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미늘창을 든 경비병들이 행진해 들어 오면서 입구가 비워졌고, 그들은 뚱뚱한 추기경을 호위하며 회의장 맨 끝으로 향했다. 그들은 입구를 지나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으로 들어갔지만, 곧 멈춰 섰다.

커다란 식탁이 방 중앙에 놓여 있었다.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홀로 앉아 필립 왕은 양고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혼자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접시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시종이 서서 언제든지 와인 잔을 채워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미늘창을 바닥에 내리치며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교황청의 질린 추기경이 프랑스 필립 국왕 폐하를 알현하고자 합니다."

"그를 들여보내!" 필립은 고기를 입에 가득 문 채 기침을 하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경비병들은 홀린 추기경이 계속 나아가도록 허락했고, 그들은 돌아서서 홀 밖으로 행진해 나갔다. 그러자 두 사람은 뒤따라 나와 입구 안쪽에 멈춰 섰다. 홀린은 테이블로 다가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폐하."

필립은 기름때 묻은 턱을 무심하게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추기경님, 언제나처럼 추기경님의 주방은 제 주방에 못지않습니다. 서비스는 비할 데가 없죠. 줄린, 제 주방과 연회장 책임자 자리를 제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받는 모든 것의 두 배, 아니 그 이상의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하를 위해 지금처럼만 일해 주시면 됩니다."

줄린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왕실의 요리에 대한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폐하,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필립은 고개를 저었다.

실망감에 고개를 숙였다.

"음." 필립은 은쟁반을 가리켰다. "이번엔 내 하인 줄린마저 속였군. 대체 무슨 일이지?" 쟁반 위에는 작은 기름 램프 두 개, 다리 세 개 달린 도자기 기구, 그리고 물통이 놓여 있었다. 가운데에는 용 그림이 정교하게 그려진 비단 안감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짚으로 만든 임시 등지와 알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해도 될까요?" 줄린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필립은 그려진 용들을 바라보며 동의했다.

줄린은 조립을 마쳤다. "제노바 무역선에서 가져온 거야.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는 두 개의 램프와 양철통을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그런 다음 달걀을 꺼내 장치 안에 넣었다. "램프에 불을 붙여야지."

"불꽃을 가져와." 필립이 손가락을 튕겼다. 하인은 나가서 불꽃을 가지고 돌아왔다.

줄린은 등불을 켜다. "등불 속 기름에서 향기가 나네요. 이제 식사하시는 동안 달걀이 준비되었으니 식사 후에 드셔도 됩니다." 불꽃이 달걀 아래 물이 담긴 양동이를 데웠다. 또 다른 불꽃은 달걀 뒤편, 오목한 반사판 앞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집중된 빛이...

달걀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었다.

필립은 안을 들여다보아 불투명한 빛 속에 떠 있는 진한 노른자를 발견했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이 세 발 달린 기계 이름이 뭐지?"

"원하시는 대로 부르십시오. 폐하의 잔입니다." 줄린은 미소를 지으며 시종 앞으로 손을 뻗어 필립의 잔을 다시 채웠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필립은 하인을 손짓으로 보내고 의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앉아, 줄린. 말해 봐." 줄린은 의자에 몸을 킁겨 앉았다.

"계란 창," 필립이 갑자기 씩 웃으며 중얼거렸다.

"폐하?"

"저것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필립은 용 장식이 있는 삼각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달걀 창문' 이에요. 안이 보이거든요."

"에그 윈도우라니, 참으로 훌륭한 이름이로군." 줄린은 목을 가다듬었다. "폐하, 실례지만, 에드워드 와 크레스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성하의 조언을 구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을 잘못 인도했군요." 필립은 차갑고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언은 물과 같아서 어디에나 있고 끊임없이 변하죠. 조언은 많습니다. 파리에겐 조언이 넘쳐나죠. 제게 필요한 건 군대입니다."

"폐하,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줄린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속삭이며 말하면서 문지기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경비병들아! 나가라!" 필립이 외쳤다. 병사들은 큰 홀에서 나와 닫힌 문 뒤로 사라졌다. 그는 몸을 뒤로 기대고 줄린이 외경에 나오는 수호자의 문석과 그것이 영국군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줄린은 왕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즉 상황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설명했다. 게이트스톤의.

줄린은 설명을 요약하며 "이제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고 말했다.

"오, 물론이죠! 당연하죠, 당연해요." 필립은 마지막 남은 고기를 삼키며 말했다.

필립은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을 집어 입에 댔다. 숨이 막히는 듯한 신음 소리가 이어졌다. 왕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줄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폐하, 폐하?" 줄린은 테이블에서 물잔을 집어 들었다.

필립은 냅킨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폭소를 터뜨렸고, 그의 웃음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낄낄거리며 기침을 하며 말했다. "영혼들? 유령 군단? 그래, 내 유령들로 그를 없애버리겠어! 확실해! 내가 믿는 유령들로!" 필립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과장된 비꼬는 말투로 고함을 질렀다. "꺼져, 에드워드, 아니면 내가!"

내 유령들을 네게 소환하리라!

줄린은 잔을 내려놓고 풀이 죽은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폐하, 저는 진심입니다."

필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노려보면서 속삭였다. "나도 마찬가지로!"
줄린, 나는 이미 크레시에서 유령 군대를 일으켰다. 그들을 데려와. 내 군대를 되살려. 그들이 에드워드에게 복수하게 해 줘. 네 돌로 그런 마법을 부릴 수 있겠나?"

줄린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다. "게이트스톤은 일종의 기계 같은 건데..."

필립은 팔짱을 끼고 탁자를 잡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만약 당신 이 당신의 유령들을 풀어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에드워드를 없애달라고 부탁할 겁니까? 말해 보세요."

줄린, 유령은 어떻게 죽이지? 혹은 에드워드를 깜짝 놀라게 해서 죽이는 건가? 그는 탁자를 쿵 내려놓았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줄린은 깜짝 놀라 뒤로 기대앉았다. "말도 안 돼! 난 따뜻한 사람들, 남자들이 필요해!"

전투 훈련을 받은 농이군! 무기가 필요해. 돈도 필요하고. 에드워드를 겁주고 싶다면, 그가 죽인 프랑스인들의 머리로 가득 찬 배들을 증표로 삼아 그의 목을 부를 수도 있어!" 필립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줄린은 시선을 떨궜다.

필립은 마음을 가다듬고 의자에 기대앉았다. "추기경님, 유감스럽게도 제 신념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추기경님만큼 세련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전쟁은 피와 땀, 그리고 충분한 보급품을 갖춘 군대로 승리하는 것이지, 유령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언이나 기도, 약속, 혹은 마법의 돌 이야기 때문에 아비뇽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듯이 교황청은 프랑스와 영국 양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합니다. 프랑스는 지속적인 방어를 위해 그 돈이 필요하고, 저는 프랑스의 이름으로, 프랑스를 섬기는 왕으로서 온 것입니다."

“폐하, 소수의 병사들과 함께 오셨으니, 제가 보기에는 ”

“아니요, 추기경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성하게서 당신을 시켜 이 일을 꾸민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하게서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약속을 전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보내신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빌어먹을 유령 군대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필립은 장치에서 달걀을 꺼내 뒤로 기대앉아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클레멘트에게 그의 계약이 실패했다고 전하십시오.”

줄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니요! 성하게서 저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당신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모르셔야 합니다!"

필립은 얼어붙은 채 떨고 있는 추기경을 쏘아보았다.

줄린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하. 저는..."

"어리석은 바보."

필립은 다시 달걀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당신에 대해서는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더 많은 면이 있군요."

줄린, 잘 생각해 보시오. 만약 교황께서 프랑스와 영국에서 걷은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게 빌려주신다면, 당신의 어처구니없는 대의를 위해 내 병력 일부를 빌려드리겠소.

만약 교황께서 거부하신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교황께서 어떻게 이단 적인 돌을 숨기고 계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폐하! 이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추기경님, 저는 누구에게도 지시받을 수 없습니다.” 필립은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제 대출을 확보해 주시면 병사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이제 저는 쉬어야겠습니다.”

“폐하—”

“그만해, 줄린. 우리 한 마디도 나눈 적 없어.” 필립은 돌아서서 복도 건너편으로 소리쳤다. “발렛 파킹, 저는 ” 끝났다! 경비병들, 들어가라!” 경비병들이 다시 나타났다. “추기경님을 배웅해라! 그리고 내 숙소를 비워라! 오늘 밤엔 더 이상 방문객은 없다!”

“예, 폐하.” 줄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풀이 죽은 채 경비병들을 따라 문으로 향했다.

~*~

다음 날, 필립과 클레멘트, 그리고 그들이 파견한 공증인들은 재무부 회의실에 모였다. 그때서야 클레멘트는 필립의 대출 요청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황궁 건설을 지연시킬 만큼 큰 금액이었다.

소문이 퍼져나갔고, 속삭임이 복도를 따라 전해졌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교황청 관리들은 이제 화가 난 교황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은 클레멘트가 필립에게 약간 의 음식과 약속, 그리고 기도 정도만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인 율린은 투생에게 다가갔고, 투생은 블라시에게 똑같이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만약 클레멘트가 그들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세 사람 모두 신학원에서 쫓겨나고 파문당해 투옥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블라시는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정오에 블라시는 경비실로 들어가 경비병 한 명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경비병은 고개를 몇 번 끄덕였고, 블라시는 그에게 편지 한 통과 금화 한 닢을 건넸다.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마라. 자, 준비해라. 그가 온다.” 블라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명령했다.

“예, 각하.” 경비병은 블라시가 차를 몰고 떠나는 동안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도착한 고위 인사들이 머무는 구역에서 피르무스 추기경은 경비실로 들어섰다. 지시받은 대로 경비병은 피르무스에게 다가가 편지를 건넸다.

“각하,” 경비병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래, 그게 뭔데?” 피르무스가 툭툭거렸다.

"안뜰에서 이 나뭇잎을 주웠습니다. 경비병의 명령서는 아닌 것 같으니, 어쩌면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르무스는 편지를 읽고 입술을 꼭 다문 채 경비병의 눈을 살폈다.

"글 읽을 줄 아세요?"

"아닙니다, 각하."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피르무스가 그에게 질문했다.

경비병은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그런 명령서의 모양새는 잘 압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죠. 이 명령서에는 귀족의 표식이 없습니다."

"이 나뭇잎을 누구에게 보여줬나요?"

"방금 발견했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보셨네요."

"좋다, 그럼 내가 돌려주도록 하겠다. 이 나뭇잎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마라. 넌 그걸 찾지 못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병사?"

"그래요."

"만약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예, 각하." 경비병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걸어갔다. 피르무스는 탐욕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다시 읽었다.

다음은 폐하께서 정하신 조건입니다. 폐하께서는 교황을 설득하는 추기경에게 대출금의 10분의 1을 비밀리에 지급하실 것입니다.

전액을 대출해 주십시오. 만약 대출금이 추기경의 최초 요청액보다 많을 경우, 폐하께서는 초과 금액의 십일조를 추기경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이 서류를 태우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피르무스는 복도를 살살이 살피며 엿보는 눈이 없는지 살폈다.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는 편지를 옷 속에 슬쩍 숨기고는 재빨리 달아났다. 멀리 그림자 속에서 블라시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피르무스는 궁전의 네 개의 창문이 있는 방에 서서 클레멘트에게 필립이 요청한 것보다 더 큰 대출을 해달라고 설득하며 더 높고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 잦은 상환 문제였다. 논쟁은 격렬해졌다. 피르무스는 클레멘트 교황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클레멘트 교황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 피르무스의 조언에 자주 의존했다. 결국 교황은 마지못해 피르무스 추기경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날 저녁, 필립 왕과 클레멘트 교황은 문서에 서명했다. 필립 왕은 이 거래를 통해 에드워드의 잘린 머리를 떠올렸고, 피르무스는 자신이 교황좌에 앉는 모습을 상상했으며, 블라시는 죽은 형제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투쟁과 쫓겨난 자신들이 프랑스 추기경이 되는 것을 생각했고, 클레멘트는 자신의 거대한 교황 기구 건설에 더 많은 지원이 생길 것을 예상했다. 이 거래는 클레멘트와 그의 재무관들,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만족시켰다.

교황청 시종장.

다음날 아침, 필립 왕은 울린 추기경을 콘클라베 홀로 소환했다.

필립은 이미 피르무스 추기경이 앞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줄린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두 추기경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둘 다 상대방의 사정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다.

“아, 질린 추기경님, 이리 오십시오.” 필립은 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줄린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폐하.”

필립은 피르무스에게로 몸을 돌렸다. “피르무스 추기경님,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피르무스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폐하, 필요한 것이 있으신지 여쭙보러 왔습니다.”

“성하께서 왕실 손님들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추기경을 보내셨다고요? 저는 제 하인들을 대동했는데, 제가 무슨 이유로 이런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필립은 턱을 문질렀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폐하.” 피르무스는 목을 가다듬고 줄린을 힐끗 쳐다보았다. “폐하, 괜찮으시다면 잠시 돌이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훌린 추기경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피르무스 추기경님, 이리로 오십시오.” 훌린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장을 나섰다.

피르무스는 속삭였다. “폐하, 저 었습니다. 제가 폐하의 대출을 받아 드렸습니다. 보상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필립은 껄껄 웃었다. “교회에도 부패가 없지는 않군. 좋아, 추기경. 궁궐 지하실에 와인 세 통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자네에게 주겠네. 물론 선물이라고 하자.”

피르무스는 몸을 움찔거렸다. “폐하,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례지만, 대출금의 십일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립은 깜짝 놀랐다. “십분의 일이라고요? 대출금의 십분의 일을 보상금으로요?”

“열 번째 이유는, 폐하께서 대출을 승인해 주시도록 설득해 주신 데 있습니다.”

필립은 얼굴을 찌푸렸다. “추기경님, 제가 드리는 것을 드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와인을 원하십니까?”

“성하께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폐하, 저희 계약 조건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르무스는 옷자락에서 종이를 꺼냈고, 필립은 그것을 읽었다. 그는 눈썹을 치켜올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나에게 대해 이런 글을 쓴 거지?”

“폐하,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보상에 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필립은 서류를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만약 당신이나 울린 추기경이 대출금의 일부를 자신들이 챙기려고 내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말한다면, 나는 그 사실을 신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당신들 두 분이 그를 모함하셨군요. 제가 침묵을 재고하기 전에 저를 떠나십시오!

“예, 폐하.” 피르무스는 표정을 굳히고 허리를 굽혀 인사한 후 방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그는 줄린을 흘끗 보고는 얼굴을 찌푸린 채 복도를 따라 황급히 사라졌다.

“줄린 추기경을 불러오너라.” 왕이 명령했다. 경비병들은 명령에 따랐다.

줄린이 다가오자 필립은 조끼에서 종이를 꺼내 두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펼쳤다. 그는 줄린을 응시했고, 줄린은 블라시의 쪽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종이를 응시했다.

필립은 크게 웃으며 나뭇잎을 조끼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줄린, 자네는 정말 수완이 좋군. 안심하네. 다 잘 될 거야.” 필립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내 대출 보증을 부탁했을 뿐인데, 자네가 그 일을 훌륭히 해냈군. 자네를 교황님 앞에서 위험에 빠뜨렸다는 건 잊어도 되겠네.” 그는 다시 한번 웃었다. “나는 교황님께서 자네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네.”

당신들을 너무 잘 알고 있소. 아, 그리고 피르무스 추기경은 당신들이 보상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믿고 있소. 당신들 중 누구라도 이 일에 대해 자백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표했소.

그 문제를 교황님과 상의하십시오.

“폐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줄린은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자, 유령의 마법 돌에 관해서는, 엄격한 조건 하에 제 병사들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하게서는 이 일에 대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제 병사들은 당신을 위해 며칠 동안만 복무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폐하.” 줄린이 대답했다.

“본 대위와 그의 부하들을 데려가십시오. 저는 비밀스러운 일에 있어서 그를 신뢰합니다. 모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뿐입니다. 그의 부하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가 직접 지휘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폐하.”

“그는 지금 아비뇽에 있고 2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줄린은 고개를 저으며 “정말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라고 말했다.

“영국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도 될까요? 본 장군은 쓸데없는 분열로 전열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병사들을 한데 모아 지휘합니다. 저는 그의 지휘력과 직감을 신뢰합니다. 그는 제 왕실 근위대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며, 짧은 시간이라도 그의 부대나 지휘권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은 200명 이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줄린 추기경님?”

“200입니다, 폐하.” 줄린은 한숨을 쉬었다.

왕은 트림을 하고 심호흡을 한 후 의자에 기대앉았다. 마침내 그는 그저

그는 줄린을 뻘뻘 응시하다가 의심스러운 듯 시선을 좁혔다. 그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줄린은 고개를 숙이며 왕이 제안을 재고 하고 화를 내며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 속에서, 아래로 향한 시선이 굳어버린 채, 줄린은 죽음처럼 고요한 홀의 광활한 공간이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로테스크 ~ 고딕 서사시 (저자: GE 그레이븐) || 제4장 ||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 <https://www.gothicnovel.org> 모든 권리 보유 (c)1998 - 미국

그의 어깨에 얹힌 짐— 숨 막힐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솟구치는 불안감이 그의 목과 얼굴을 태우는 듯했고, 그는 이 높고 둥근 홀에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만약 그가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면, 합의에 따라 그렇게 했을 것이다.

"됐어." 필립 왕이 마침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말해라. 본 대위가 언제 어디서 너를 고용할 것이며, 네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4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